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203

JCCT 2021-8-24

##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역할

###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Major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신승호\*, 신소홍\*\*, 김유정\*\*\*, 이숙연\*\*\*\*

Seung-Ho Shin\*, So-Hong Shin\*\*, You-Jeong Kim\*\*\*, Sook-Yeon Lee\*\*\*\*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을 파악하고, 전공몰입의 영향요인 그리고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28명 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몰입 영향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가 예측되었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의 간에 전공선택 동기는 부분매개역할을 하였고,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개인적 동기가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간호학 선택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

**Abstract** This study involves descriptive research designed to understand the level of major satisfaction,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major commitment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major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major selection motive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with 228 people enrolled in nursing colleges located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proceeded from November 7th to November 16th, 202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WIN 22.0 program. The analysis found that the level of major satisfaction was high and that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the major commitment were strong. Major satisfaction and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ere predicted as factors influencing major commitment.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 motive for major selection, and specifically, they were partially mediated by personal motives. These results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th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ajor commitment,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in which nursing is selected as a major.

**Key words** :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Major commitment

\*정회원, 동의대학교 보건 의과학과 박사 후 (제1저자)  
\*\*정회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1년 6월 27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1일

Received: June 27, 2021 / Revised: July 23, 2021  
Accepted: July 31, 2021  
\*Corresponding Author: misuk7633@hanmail.net  
Dept. of Nursing, Kyongbuk Science College, Korea

## 1. 서 론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는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 간호 의료 시장은 개인의 고유상황에 따라 의학적 지식과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1]. 즉, 간호 의료 환경은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 높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을 회복·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술이 필요하다[2]. 이에 간호학 교육에서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 및 전문 지식 그리고 실제 의료 분야의 임상 교육을 포함해서[3], 간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용성을 익힌다[4].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간호학과는 전공필수 교과목의 비중이 크고[5], 임상에서 실습환경과 실습업무 부담을 가지면서[6], 전공 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5].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 삶을 지치게 하여 가끔 학교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3], 간호대학생이 학업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과정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7]. 이에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요구하는 전공몰입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8]. 전공 몰입은 성취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전공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직관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9].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직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서 사회적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에 대한 몰입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10]. 특히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 전공몰입에 차이를 보이고[5], 전공에 대한 낮은 몰입도는 대학생들과 향후 진로에 불확실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낸다[1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공수업에 대한 몰입이 우선되어야 한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공 교육에 몰입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과 자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높은 전공 만족도로 학업에 더 열중하며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식함양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12].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만[6], 전공에 만족하지 않으면 심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13]. 더욱이 간호학과는 졸업 후 바로 고객을 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졸업하면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4]. 이러한 전공 만족도는 학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몰입도를 높여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10]. 따라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 요구,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추가도전에 직면한다[14]. 대학은 학문 전달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곳이므로 전공선택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된다. 특히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이론과 임상실습을 함께 전공해야 하는 간호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자신감 그리고 흥미가 필수적이다[15]. 그렇지만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자신의 적성보다 취업률과 타인의 권유로 선택할 경우 중도 포기 이유가 된다[5]. 그러므로 전공선택 과정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수단이면서 잘못된 전공선택은 전공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수업 몰입도에 관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몰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전공만족도[12], 임상실습 중 태움 관찰 경험과 간호전문직관, 학교만족도[9],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10], 그리고 학습몰입도에 스트레스반응과 심리변화[16], 긍정심리자본과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 대인관계와 학습몰입의 관계[7] 등 몇몇 연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선택 동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매개요인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전공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향상에 주목하고, 전공몰입의 영향요인과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로 하고, 회귀분석과 7개의 변수로 하였을 때 샘플 사이즈가 194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 가능성과 불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하여 233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분석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5부를 폐기하고 22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인터넷 구글폼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배부·회수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전공 만족도

이동재[17]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도구는 일반만족 6개 문항, 인식만족 6개 문항, 교과만족 3개 문항, 관계만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전공 만족도 .914, 하위변인 인식만족 .893, 일반만족 .803, 관계만족 .770, 교과만족 .841로 나타났다<표 2>.

#### 2) 전공선택 동기

한예정[18]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타당화

한 것이다. 이 도구는 개인적 동기 4개 문항과 사회적 동기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선택 동기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전공선택 동기 .728,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 .861, 사회적 동기 .720으로 나타났다<표 2>.

#### 3) 전공몰입

김규미[19]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도구는 단일변인의 총 7개 문항이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0이었다<표 2>.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2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평균과 정규성 검정은 기술통계를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t-test와 ANOVA를 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셋째,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넷째,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과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 Kenny[20]의 3단계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추가 검정으로 Sobel test를 하였다.

###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설문 도중에 항시라고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수행 후 연구자의 책임 하에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자발적 참여자만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에 참여토록 하였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8명(20.2%)이고 여자는 181명(79.8%)이었다. 학년은 1학년 53명(23.2%), 2학년 59명(25.9%), 3학년 56명(24.6%), 4학년 60명(26.3%)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150명(65.8%), 만족 57명(25.0%), 불만족 21명(9.2%) 순이었다. 평균 성적은 중위권 121명(53.1%), 상위권 65명(28.5%), 하위권 42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결정에 대하여는 본인이 183명(80.3%)으로 매우 많고, 부모 33명(14.5%), 기타 12명(5.3%)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 직장은 대학병원 146명(64.0%), 일반병원 67명(29.4%), 기타 15명(6.6%) 순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  
Table 1. Variation in major commitment as caus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itic	Category	n=228(%)	M±SD	t or F(p)	Sf
Gender	Male	48(20.2)	3.98±.64	.219 (.641)	
	Female	181(79.8)	3.95±.62		
Grade year	Freshman	53(23.2)	4.02±.68	.346 (.792)	
	Sophomore	59(25.9)	3.91±.62		
	Junior	56(24.6)	3.91±.57		
	Senior	60(26.3)	3.93±.6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 (a)	21(9.2)	3.69±.70	15.757 ( $<.001$ )	a,b<c
	Average (b)	150(65.8)	3.83±.59		
	Satisfied (c)	57(25.0)	4.31±.53		
GPA	Lower (a)	42(18.4)	3.61±.51	18.292 ( $<.001$ )	a<b<c
	Middle (b)	121(53.1)	3.87±.59		
	Upper (c)	65(28.5)	4.28±.60		
Biggest influence in major selection	Student (a)	183(80.3)	4.02±.64	8.327 ( $<.001$ )	a>b,c
	Parents (b)	33(14.5)	3.63±.45		
	Other (c)	12(5.3)	3.55±.38		
Employe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146(64.0)	3.99±.62	1.517 (.222)	
	Ordinary hospital	67(29.4)	3.83±.61		
	Other	15(6.6)	3.99±.60		

Sf: Scheffe

## 2. 기술통계와 신뢰도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의 평균과 정

규성 검정을 위한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공 만족도는 3.91점으로 높았고, 하위변인은 일반만족 4.06점, 인식만족 3.95점, 관계만족 3.83점, 교과만족 3.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동기는 3.74점으로 높았으며,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 3.94점, 사회적 동기 3.53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몰입은 3.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성 분포 검증을 위한 왜도는 -.364~.268이며, 첨도는 -.878~-0.281로 기준을 충족시켜 정규성에 어긋나지 않았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전공 만족도 .914, 하위변인 인식만족 .893, 일반만족 .803, 관계만족 .770, 교과만족 .841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동기는 .728,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 .861, 사회적 동기 .720으로 나타났다. 전공몰입은 .930이었다.

표 2. 기술통계와 신뢰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Category	M	SD	skewness	kurtosis	Cron
<b>Major satisfaction</b>	3.91	.47	-.037	-.645	.914
Satisfaction in perception	3.95	.58	.232	-.711	.893
General satisfaction	4.06	.46	-.123	-.281	.802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3.83	.56	-.355	-.373	.770
Satisfaction with subjects	3.78	.67	.045	-.819	.841
<b>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b>	3.74	.53	-.013	-.404	.728
Personal motivation	3.94	.73	-.364	-.413	.861
Social motivation	3.53	.69	-.024	-.293	.720
<b>Major commitment</b>	3.94	.62	.268	-.878	.930

Cron: Cronbach's  $\alpha$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만족(4.31점), 보통(3.83점), 불만족(3.69점) 순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높았고, 통계적으로( $F=15.757, p<.001$ )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보통이하 집단보다 만족의 집단이 높았다. 평균성적에서는 상위권(4.28점), 중위권(3.87점), 하위권(3.61점) 순으로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통계적으로( $F=18.292, p<.001$ )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하위권 집단보다 중위권 집단이 높았고, 이보다 상위권 집단이 높았다. 전공선택 결정권에 따른 차이는 본인(4.02점), 부모(3.63점), 기타(3.55점)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F=8.327, p<.001$ )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부모나 기타의 집단보다 본인 집단이 높았다.

표 3.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Division	Major satisfactio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ll	Satisfaction in perception	Genera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subjects	All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ll	1							
Satisfaction in perception	.660**	1						
General satisfaction	.846**	.352**	1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883**	.413**	.721**	1				
Satisfaction with subjects	.900**	.390**	.768**	.774**	1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1		
All	.592**	.352**	.484**	.557**	.549**			
Personal motivation	.521**	.275**	.468**	.460**	.510**	.758**	1	
Social motivation	.350**	.245**	.241**	.362**	.296**	.721**	.095	1
Major commitment								
All	.735**	.344**	.669**	.662**	.741**	.564**	.552**	.274**

\*\* :  $p<.01$

표 4.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selection on major commitment

Division	Subordinate variable: major commitment					
	B	SE	$\beta$	t(p)	R <sup>2</sup>	F(p)
<b>Major satisfaction</b>	.978	.060	.735	16.310(<.001)	.539	266.016(<.001)
Satisfaction in perception	.036	.051	.033	.693(.489)		
General satisfaction	.261	.096	.193	2.713(.007)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167	.081	.151	2.078(.039)	.576	78.165(<.001)
Satisfaction with subjects	.430	.073	.463	5.921(<.001)		
<b>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b>	.666	.065	.564	10.254(<.001)	.315	105.153(<.001)
Personal motivation	.451	.046	.531	9.858(<.001)	.348	61.682(<.001)
Social motivation	.202	.049	.224	4.155(<.001)		

####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전공 만족도는 전공선택 동기( $r=.592, p<.001$ )와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 $r=.521, p<.001$ ), 사회적 동기( $r=.350, p<.001$ )와 그리고 전공몰입( $r=.735, p<.001$ )과 정(+ )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 $r=.721, p<.001$ )과 정(+ )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 5.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전공몰입( $\beta=.735, p<.001$ )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9%를 나타내었고, 회귀식은 F값이 266.01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을 투입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교과 만족( $\beta=.463, p<.001$ ), 일반만족( $\beta=.193, p=.007$ ), 관계만족( $\beta=.151, p=.0039$ ) 순으로 전공몰입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57.6%를 나타내었고, 회귀식은 F값이 78.165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 $\beta=.564, p<.001$ )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31.5%를 나타내었고, 회귀식은 F값이 105.153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전공선택 동기 하위변인을 투입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인적 동기( $\beta=.531, p<.001$ )와 사회적 동기( $\beta=.224, p<.001$ )가 전공몰입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34.8%를 나타내었고, 회귀식은 F값이 61.682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 6.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 간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 효과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 간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1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전공선택 동기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592, p<.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34.8%이다. 2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735, p<.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9%이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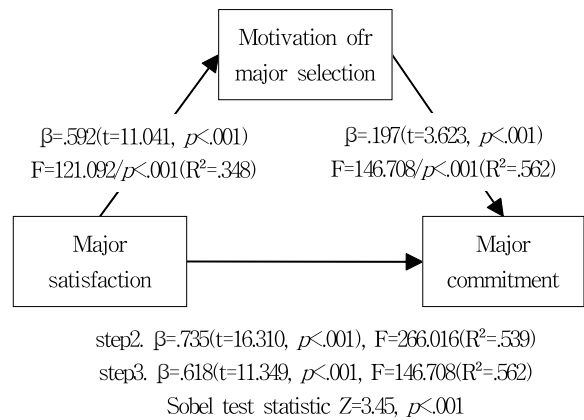


그림 1.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간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효과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만족도( $\beta=.618, p<.001$ )와 매개변수인 전공선택 동기( $\beta=.197, p<.001$ )가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56.2%이었다. 이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beta=.735$ )에 비하여 3단계( $\beta=.618$ )에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추가 검정한 Sobel test에서도  $Z=3.45(p<.001)$ 로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전공선택 동기 하위변인 각각을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개인적 동기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521, p<.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26.8%이다. 2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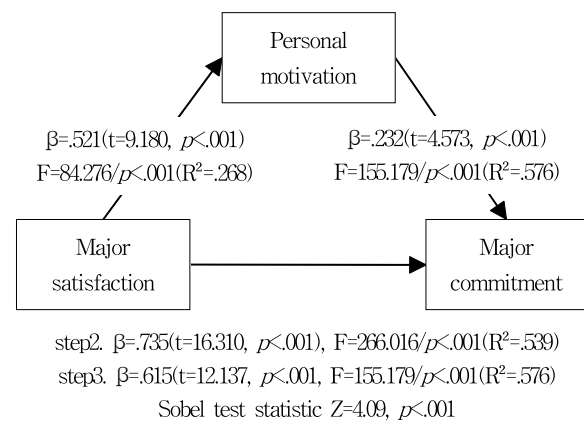


그림 2.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간 개인적 동기의 매개효과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9%이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 $\beta = .615, p < .001$ )와 매개변수인 개인적 동기( $\beta = .232, p < .001$ )가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57.6%이었다.

이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beta = .735$ )에 비하여 3단계( $\beta = .615$ )에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추가 검증인 Sobel test에서도  $Z = 4.09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1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사회적 동기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 = .350,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11.9%이다. 2단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beta = .735,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9%이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 $\beta = .729, p < .001$ )는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지만, 매개변수인 사회적 동기( $\beta = .019, p = .694$ )는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7%이었다. 추가 검증인 Sobel test에서도  $Z = .039 (p = .069)$ 로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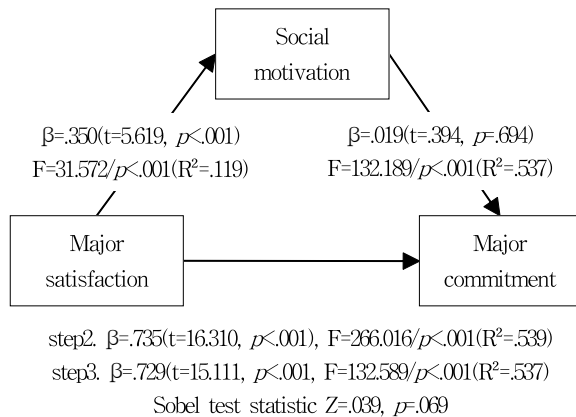


그림 3.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간 사회적 동기의 매개효과  
 Figure 3.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IV. 논의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개인과 국민 보건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매개 요인을 파악하여 전공몰입 향상을 위한 중재방향 설정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 수준은 3.91점으로 높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3.91점[12], 3.81점[21]과 비슷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전공은 진로에 대한 중요한 잠재요소이고,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감정 상태이다[10].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복합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12],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따라 지식과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4]. 따라서 교과과정, 관계 만족, 학교 만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대학 생활 내내 영향을 미친다[15].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 만족도는 학업 등 전반적으로 중요한 가치적 역할을 하므로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선택 동기는 3.74점으로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3.57점[10]과 비슷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간호학은 높은 취업률 때문에 선택하나 과중한 학업, 임상 실습, 자기주도 학습, 교과 외 다양한 활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22], 적성이나 흥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의감이나 방황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23]. 따라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는 타과에 비하여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직무수행을 위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가 되고,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24]. 이러한 경우 간호학에 대한 흥미상실과 진로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공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간호학은 이론과 실습 그리고 국가고시 통과라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공몰입은 3.9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3.69점[12]과 비슷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몰입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현대 보건의료 환경은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21], 전공에 몰입하여 학습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16]. 그러므로 자신의 목적과 성취감을 높이고, 전문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수업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몰입은 어려운 문제 극복의 자원이 될 수 있고, 대안을 찾는 방안이 되는 정신의 집중상태로서[12],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심리상태를 묘사하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10]. 더욱이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학습에 대한 도전 의지와 개인 능력의 균형을 지녔으며 분명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학습 과제 수행에 최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감 고취의 반복적 활동으로 간호사로서 역할과 자질을 더욱 함양시키게 되므로 전공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첫째, 전공 만족도와 하위변인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선택 동기와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7,8,10,12]와 일치한다. 전공 만족도는 향후 간호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학습 과정 속에서 교육적 책임과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에 몰입하여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10]. 특히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 방향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25],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므로[26]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교과목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필요가 있고, 간호학에 대하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10]. 특히 전공만족은 자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간호사로서 적응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21]. 그렇지만 전공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방향을 다른 분야로 전향할 수도 있다[25]. 이러한 전공 불만족은 대학교육의 목적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전공수업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전공수업에 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학업과정이 어려운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간호대학생은 학생의 본분과 책임감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0]와 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하위요인 개인적 동기

와 사회적 동기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의해[27] 지지되었다. 이는 전공을 자신의 흥미나 적성, 재능,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는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수업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학습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28].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요인으로서 학업성취를 위한 간호학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전공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고, 향후 사회로 진출하여도 조직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10,27]. 그러므로 자신이 간호학을 선택하였을 때는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잘못된 전공선택은 학업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간호학 선택은 적성, 소질, 장래 직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공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 간 전공선택 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공선택 동기가 매개역할을 하였고, 하위변인 개인적 동기가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논의함에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무용전공 유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 간에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29], 간호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3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10],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의 전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25], 전공만족은 그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심리와 학교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사실들과의 융화정도이고[27], 전공선택 동기는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는 결정요인이다[15]. 그리고 전공몰입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같은 내면적 표현을 하게 해주는 필수적 요인이다[10]. 이러한 설명들은 대학생들에서 전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이 적성에 맞는 학생의 경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되지만 [25],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전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이 진학한 간호학에 대한 전공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동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공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졸업 후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전공선택 동기가 적성, 재능(소질), 흥미, 장애직업을 고려하였다는 개인적 동기가 매개역할을 하였지만, 주변의 권유나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적(합격 가능성)에 맞춰 간호학을 선택하였다는 사회적 동기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응에 개인적 동기는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동기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3]와 흥미나 적성과 같은 내적동기로 전공선택을 할 경우에 외적동기의 경우보다 낮게 후회한다는 결과[31]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간호학 선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소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10]. 특히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선택한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한다[23]. 그러므로 진학 학생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할 경우 전공에 몰입하여 학업성취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하므로[14], 진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하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sup>

최근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26].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몰입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지만,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에 몰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교육의 환경이나 커리큘럼을 원활하게 구성하여 학업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의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간호학 선택 시 적성이나 소질 그리고 흥미 및 장애직업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V. 결 론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전공선택 동기, 전공몰입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와 K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 그리고 전공몰입의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전공몰입 영향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 동기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취적이며 문제 기반 교수방법이나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도를 높이는데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전공과목 선택을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과 같은 특성 전반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간호대학생이 학업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년이나 학생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통합적인 커리큘럼 계획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지역 단위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A. Kim,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using a TBL on self efficacy and self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26-43, 2017. <https://doi.org/10.17703/IJACT.2017.5.2.26>
- [2] S. Y. Lim, S. Y. Kim and H. M. Choi,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 No. 2, pp. 45-51, 2015.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45>
- [3] J. A. Kim, "Living as a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3, pp. 20-23, 2016. <http://dx.doi.org/10.17703/IJACT.2016.4.3.20>
- [4] J. A. Kim, E. H. Seo and C. J. Kim,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disaster re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1, pp. 23-31, 2018. <https://doi.org/10.17703/IJACT.2018.6.1.23>
- [5] H. J. Shin, H. J. Park,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2, pp. 643-664, 2017.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2.643>
- [6] E. Y.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and H. 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2, No. 1, pp. 35-43, 2016. <http://dx.doi.org/10.7236/JCCT.2016.2.1.35>
- [7] D. O. Kim, H. J. Lee and A. Y. Lee,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 pp. 349-357, 2020.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349>
- [8] S. H. Kim and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57>
- [9] D. W. Choi, “The effect of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major commitmen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2, pp. 49-57, 2020.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2.049>
- [10] S. H. Shin,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to Choose a Major,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in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Dong Eui University, Busan, 2021.
- [11] H. J. Bang, “The relation between consideration level for career and immersion level in major study of students in beauty art major”,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15, No. 1, pp. 69-77, 2019.
- [12] S. H. Shin, J. W. Lee and C. T. Kim,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136-145,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36>
- [13] J. A. Kim and E. Y. Cho,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 72-79, 2018. <https://doi.org/10.17703/IJACT.2018.6.2.72>
- [14] J. Y. Lee, “An Explo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pp. 13-22, 2016. <https://doi.org/10.17703/IJACT.2016.4.4.13>
- [15] D. K. Lim, H. S. Kwon and W. J. Oh,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6, No. 4, pp. 85-109, 2016. <https://doi.org/10.35273/jec.2016.6.4.005>
- [16] C. S. Shim, “Influence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stress response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 83-91,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83>
- [17]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8] T.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targe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specialized in cooking/dining related”, Ph.D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2014.
- [19] K. 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5.
- [2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1] H. S. Kim, G. Park and H. Kang, “The relationship

- among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 263–270,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263>
- [22]G. S. Jeong and E. J. Park,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7, No. 4, pp. 253–263, 2019. <https://doi.org/10.15268/ksim.2019.7.4.253>
- [23]M. K. Joo, W. J. Lee and I. Y. Hwang,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ion of non-traditional learner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1, No. 1, pp. 47–58, 2017.
- [24]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No. 1, pp. 46–51, 2007.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25]S. H. Yoon and S. H. Song, “The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regardi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cused o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4, pp. 591–600, 2020.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591>
- [26]H. E. Jo, Y. H. Ahn, S. M. Ryu, J. Y. Lim and H. K. Kim,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6, No. 3, pp. 1008–1017, 2019. <http://dx.doi.org/10.12925/jkocs.2019.36.3.1008>
- [27]T. H. Choi, “The effects of major selecting motivation of culinary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commitment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Foodservice Industry & Management Research*, Vol. 13, No. 2, pp. 5–24, 2017.
- [28]E. Y. Oh, “Effects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s of Airline Service Students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Ph.D dissert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Gyeonggi-do, 2019.
- [29]M. S. Seo, “The effects of motives for major choose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s”,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2020.
- [30]B. H. Kim and J. H. Shin,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dept. of colle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5, pp. 141–166, 2016. <http://dx.doi.org/10.22143/HSS21.7.5.8>
- [31]H. Y. Kang and T. C. Chung, “Analysis of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college graduate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regret: focused on college life, employment goal, first job satisfact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9, No. 2, pp. 1551–165, 2017. <http://dx.doi.org/10.14702/JPEE.2017.155>